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1월 30일
제188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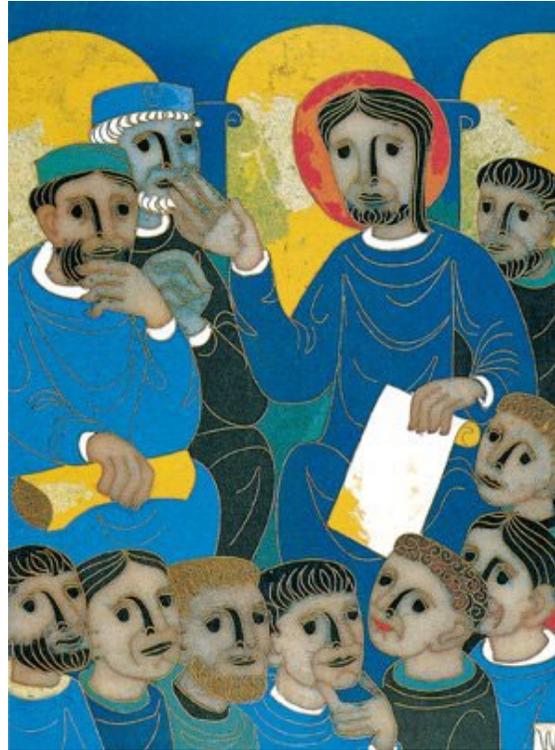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루카 4,21-22)



〈나자렛 회당에서 강론하시는 예수님〉, 예기노 바이너트, 칠른, 독일

연중 제4주일 (다해)

제 1 독서 예레 1,4-5.17-19 |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화답송 시편 71(70)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제 2 독서 1코린 12,31-13,13 <또는 1코린 13,4-13>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복음 루카 4,21-30 |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파견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파견되신 것이 아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²¹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²²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²³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듣는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 보아라.’ 할 것이다.”
²⁴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²⁵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²⁶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²⁷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²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²⁹ 그래서 그들은 들고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³⁰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복음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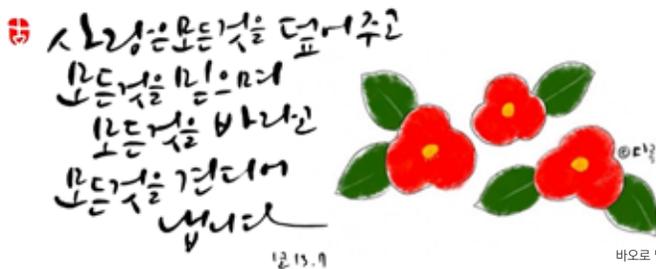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무엇을 기다릴 때, 자주 함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일’이 공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오늘’이 됩니다. 가난한 이들과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루카 4,18-19 참조). 오랫동안 기다리고 희망한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나자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구약 성경의 예를 드십니다. 사렙타의 과부도 시리아 사람 나아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만 은총을 베푸셨음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난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고, 벼랑으로 끌고 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당하게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십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벼랑에서 떨어뜨리려는 나자렛 사람들의 행동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부활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승리를 보여 주려는 복음사가의 의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총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천 년 전 선포된 은총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교회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현을 마감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낸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한다. 예루살렘에서는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으며, 450년에는 초 봉헌 행렬이 여기에 덧붙여졌다.

아기 예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시메온과 한나를 만난 사건을 기념해 ‘만남의 축일’이라 부르며 촛불 행렬을 했다. 예수께서 “계시의 빛”이라고 한 시메온의 찬미를 드러내기 위해 촛불을 밝힌 것이다. 이 예식이 5세기 중엽 로마 교회에도 알려지기 시작해 서방 교회에 전파됐다. 서방 교회에서는 동방 교회처럼 ‘만남의 축제일’ 또는 ‘성 시메온의 날’로 지냈다. 중세 후반에는 촛불 행렬 때문에 ‘성축절(聖燭節)’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후 성모 신심과 성모 축일이 발달하면서 1969년까지 ‘성모 취결례(取潔禮)’로 지냈다. 오랫동안 주님 축일을 성모 축일로 지내온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으로 이 축일의 본뜻을 되찾아 1970년부터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내고 있다.

이날 행렬에 사용되는 초를 축복하던 전통은 한 해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하는 관습으로 정착됐다. 그래서 이날 교회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한다. 초는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힌다. 교회는 일찍부터 ‘세상의 빛’(마태 5,14)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지로 초를 사용해왔다. 이날 교회에서 초를 봉헌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느님께 봉헌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돼 나 자신을 봉헌하자는 뜻에서다. 이처럼 주님 봉헌 축일은 예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축성 생활의 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여, 주님께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축성 생활의 날에 수도 성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 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권고한다.

봉헌의 성경 의미는 ‘따로 떼어 놓는 것’(탈출 12,13)이다. 인간이 제물을 따로 떼어서 하느님께 드리면 하느님께서서는 봉헌된 제물과 이를 봉헌한 인간 모두를 거룩하게 축성하신다. 따라서 봉헌은 인간 중심으로 보면 내어 놓음이지만 하느님 중심으로 보면 ‘축성’이다. 그러기에 축성 생활은 교회에 생명과 성덕을 가져오는(교회헌장, 44항) 생활이기에 이 날을 ‘축성 생활의 날’이라 한다.



Presentation of Jesus in the Temple,
by Fra Angelico, 1440-42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오랫동안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사제수품 2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1베드 4,8)

김태진 베네딕토 주임 신부님의 사제수품(1994년 2월 2일) 28주년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제수품 28주년 축하 미사
1월 30일(주일)
오전 10시 미사

1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1월 30일(일) 오전 11:40 (B-1,2)

2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설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2월 1일(화) 오후 7:30
-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미사는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기도와 분향, 미사로 이어집니다.

3 가톨릭 성서모임 2022년 봄학기 그룹원 모집

- 성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화할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청년(19세-39세) / 어버이(40세 이상)
 - 공부 기간 : 15주(주 1회 2시간)
 - 공부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신청 방법 : 청년 - bit.ly/spc2022s
어버이 - bit.ly/cblm2022s
 - 신청 마감 : 22년 2월 13일까지
 - 등록비 : \$30(해설서 구입 시 +\$20)
 - 문의 : 청년 - 강동철 로베르도 (571) 432-9950
어버이 - 신상희 글라라 (703) 399-4768
이메일 - spccblm@gmail.com

4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 일시 : 2월 5일(토) 오전 9시 (토요 신심)
2월 5일(토) 오전 10:30 (토요 신심 미사)
-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Defending Life Day

- 버지니아 주 정부에서는 3월 리치먼드에서 생명을 살리는 친 생명 법안을 포함하여 2,000여 개가 넘는 법안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은 낙태반대와 생명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Vaprolifeday.org
- 
- FEBRUARY 9, 2022
DEFENDING LIFE DAY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회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날씨에 관한 본당(알링턴 교구) 지침

1. 질병이나 악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 기도, 성서 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교구 웹사이트 참조](#))
2. 우리 본당은 악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 (www.fcps.edu 참조)
3.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악천후로 인해 미사참례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참례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4. 악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코로나19 본당 수칙

- 
-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오미크론에 천 마스크나 덴탈용 마스크는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KF 94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본당 미사 참례와 모임시에 KF 94를 써주시고, 평일 미사에는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평일미사 때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4. **회합할 때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5.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1월 26일(수)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평화와 공동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에 하느님께서 평화와 치유를 주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모든 정치적 행위와 계획이 당파적 이해보다는 인간의 형제애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형제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월 23일(연중 제3주일)

주일헌금	\$ 4,803.00
교무금	\$ 15,974.00
교무금(신용카드)	\$ 2,400.00
감사 헌금	\$ 140.00
2차 헌금	\$ 2,129.00
온라인 봉헌	\$ 3,580.00
합계	\$ 29,026.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2월 3일(목) 오후 5:00-6:00
- 2월 4일(금) 저녁 8:00-9:00
- 2월 6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 강론
2. 특강 : 윤원진 비안토 신부
“위대한 성인들”(26)
- 베다 성인과 에프렘 성인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목, 토</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 7:30 PM</td> <td>• 11:00 AM</td> </tr> </table>	화, 목, 토	수	• 6:00 AM	• 7:30 PM	• 7:30 PM	• 11:00 AM
화, 목, 토	수						
• 6:00 AM	• 7:30 PM						
• 7:30 PM	• 11:00 AM						